

조기 계획

KOREAN

치매에 걸린 사람, 그 가족 및 보호자는 조기 계획을 통해 자신들의 재정 및 법률 문제를 훨씬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앞서 계획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및 기관을 소개합니다.

치매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 결정 능력이나 돈을 다루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능을 훨씬 오래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능력이 감소되어 재정 및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전 계획

사전에 계획하면 가족과 보호자들이 치매에 걸린 사람의 문제를 더욱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한 치매 환자가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경우 치매 환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서류에 서명할 수 있을 때 조언을 구하십시오.

돈 문제

은행 구좌가 공동 명의일 경우 치매 환자의 배우자가 구좌를 조정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 환자가 그 구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름만으로 된 구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치매환자는 법적 수행 능력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구좌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더 이상 수행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권한은 유효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치매환자가 조정 변경에 동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해결을 위해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모든 재정적 구좌에 공동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 담당자와 차후 재정 문제에 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재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은행 매니저
- 공인 재정 상담가
- 변호사
- Alzheimer's Australia

대리 위임권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서명 시에 법적 수행 능력이 있을 경우 대리 위임권이라고 하는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 위임권은 해당인이 재정 사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지명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정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진단에 상관 없이 이러한 대리 위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혹은 일반적인 대리권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법적 수행 능력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대리 위임권은 철회되지 않는 한 대리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대리 위임권의 장점 중 하나는 치매 환자가 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행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대신하여 그러한 행동을 할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치매 환자가 대리 위임권 부여를 고려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진단 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을 때 그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 가족과 보호자들도 대리 위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그들도 무능력한 상태가 될 경우에 자신들의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게 합니다.
- 대리 위임권 사본을 소지하고 보관장소를 알도록 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변호사
- 법률협회 (Law Society) 혹은 법률지원 기관 (Legal Aid)
- Public Advocate 혹은 Public Guardian
- Alzheimer's Australia

유언

유언은 고인의 유산 배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유언은 해당인이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치매 환자가 유언을 만들거나 유언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서명할 능력이 여전히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최근의 유언을 만들게 됩니다.
- 실행자가 누구인지 유언장이 어디에 보관될지를 알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변호사
- 법률협회 (Law Society) 혹은 법률지원 기관 (Legal Aid)
- Alzheimer's Australia

의료에 대한 결정

치매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할 능력을 잃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신뢰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주 및 준주의 법에 의해 특정 법정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그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의료에 대한 결정을 위해 사전 계획을 하도록 돋기 위한 두 가지 유형의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 문제를 다루는 대리 위임권. 이를 통해 의료 결정을 위한 대리 결정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에 대한 희망사항을 표현한 사전 지시문

일부 주 및 준주에서 다른 이름의 문서가 사용될 수 있지만 문서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치매 환자가 의료 문제를 다루는 대리 위임권 혹은 사전 지시문을 만들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문서 사본을 가지게 되고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변호사
- 법률협회 (Law Society) 혹은 법률지원 기관 (Legal Aid)
- Public Advocate 혹은 Public Guardian
- Alzheimer's Australia

후견 및 관리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후견 보드 (Guardianship Board) 혹은 재판소 (Tribunal)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결정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을 위해 후견인 혹은 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문제를 다루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치매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경우 후견인 혹은 관리인 지명을 위한 신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 혹은 관리인 지명 신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Alzheimer's Australi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Alzheimer's Australia는 지원과 정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치매 정보라인 (**1800 100 500**)에 연락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 및 기타 설명서를 위해서는 저희 웹사이트 fightdementia.org.au를 방문하십시오.